

# 2025 신년사

사랑하는 방송대 가족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즉 뱀의 해, 그중에서도 푸른 뱀의 해입니다. 올해를 을사년이라 하듯이 모든 해에 대해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짝지어서 칭하는 것은 우리가 천간과 지지의 긍정적인 뜻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보다 밝은 내일을 꿈꾸도록 하고자 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뱀은 지혜와 변화, 그리고 끊임없는 재생의 상징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설과 신화 속의 뱀은 때로는 창조의 지혜를, 때로는 변화의 역동성을,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새해를 맞아, 중국의 철학서 <주역(周易)>의 구절인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뜻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듯이 우리 방송대도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변화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성장과 재생을 준비하는 변화입니다. 우리 대학도 그동안 쌓아온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과 재도약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학의 50여 년의 원격교육 역사를 바탕으로 하되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원격교육 모델은 미래 교육의 핵심이자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매우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여 온라인 교육의 질적인 고도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유’와 ‘협력’은 올해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을 나누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해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격교육 노하우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대학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대학이 글로벌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발전은 관성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용기와 도전정신, 그리고 헌신과 열정이 있다면 더 큰 비전과 희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대 가족 여러분**

2025년 푸른 뱀의 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뱀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재생의 힘을 우리 대학의 에너지로 삼아 변화의 길 위에서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확신을 갖고 우리 대학의 미래 가치를 더욱더 단단히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을사년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우리 대학에도 더 큰 성과와 발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2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고 성 환**